□ 성 명 서 □

물가 잡는다고 낙농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가!

낙농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원유가격인하에 경도된 농식품부의 추악한 행태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낙농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낙농제도개혁이라는 번지르르한 겉포장 속에 정작 알맹이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낙농가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만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물가통제를 위해 낙농가 원유대를 깎으려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도입으로 인건비를 상승시켰고, 가혹한 환경규제로 인해 농가들은 빚을 내가며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우유생산비의 50%가 넘는 사료값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자물가를 올려놓고 물가통제를 위해 원유대를 깎아 낙농가의 생존권을 짓밟으면서도 정작 유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마진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관대한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우유급식이 중단되면서 낙농가의 정상계약량이 4~15% 삭감된 상황에서 우리 낙농가가 양보하여 1년간 유예한 원유대 마저도 깎겠다는 것이 과연 국제경쟁력확보이고 낙농제도개혁입니까?

농식품부의 행태는 청년낙농인들에게 농업·농촌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듯 합니다. 농식품부가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에서 중재하는 척 저급한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왜곡하고, 낙농가들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갑질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행을 위해 생산자대표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서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당신들이 책상에서 낙농가들의 목줄을 조일 때 우리들은 새벽에 일어나 착유를 하고 송아지를 돌봅니다. 당신들이 시원한 에어컨 밑 책상에 앉아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낙농가 유대를 깎으려 할 때 우리들은 땡볕에 나가 소를 먹일 조사료를 베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인하를 주장하는 원유대 21원이 목장에서 어떤 의미인지나 알고 있습니까? 21원 인하로 겪게 될 낙농가의 고통을, 그 이후에 벌어질 사태를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진국 공무원들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고 당신들이 혈세로 받는 급여를 삭감한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껀가요? 당신들처럼 현장을 모르고 낙농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국제경쟁력, 낙농제도개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신들의 반 축산정책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생산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값을 폭등시키더니 살처분농가에게는 보상금을 삭감하고 지급을 지연하여 입식을 막으면서 2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계란수입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도한 가금육 수급조절사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도 책임을 회피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마사회

경마수익금 감소로 축발기금이 고갈위기임에도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가축사육두수 감축이 논의되어도 역시 당신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소비기한연장, 유기질비료사업 지방이양 등 수 많은 현안에 당신들은 복지부동을 넘어 축산농가에 비수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부동산폭등, 청년일자리부족,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에 현실은 엄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낙농업에서 희망을 보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조한다는 소명을 갖고 낙농업에 투신했습니다. 10억~20억이 넘는 목장투자와 5억 이상이 넘는 빚더미를 떠안으면서도 밝은 낙농미래를 생각하며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실정은 농업·농촌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던 청년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농업·농촌에서 희망을 찾겠습니다. 당신들이 휘두르는 비수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더 이상 낙농의 미래를 당신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위험한 이유는 낙농발전을 위하기보다 유업체와 합작하여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기 때문이고 입신양명을 위해 농업의 주인을 농장을 무시하고 당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현수장관은 낙농가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여 주십시오. 농민인 낙농가를 옥죄는 김현수장관과 당국자는 모두 즉각 사퇴하여 낙농산업을 정상화 해주십시오.

2021. 8. 17(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청 년 낙 농 가 일 동

청년분과위원장 정해정

경기도위원장 심재권

강원도위원장 지준식

충북도위원장 김홍섭

경북도위원장 권택만

경남도위원장 이동학

전북도위원장 장선수

전남도위원장 조영래